

## 번역세미나

2014130069 박찬희

범위 : 원문 기준 처음 두 장

1.

원문

Diejenigen, die davon befallen werden, können sie nicht erklären, und diejenigen, die nichts dergleichen je erlebt haben, können sie nicht begreifen.

번역본

정열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그런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정열을 이해하지 못한다.

평가

앞 문장이 정열에 대한 문장이었는데, 본문의 경우 대명사로 받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Diejenigen, davon, dergleichen 등등) 이 점에 있어서 번역본은 'die davon befallen werden' 을 '정열에 빠진 사람' 이라고 해석하는 등 대명사 부분을 풀어서 설명 해주었는데, 다소 의역이지만 문화적 적응을 잘 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2.

원문

Andere ruinieren sich, um das Herz einer bestimmten Person zu erobern, die nichts von ihnen wissen will.

번역본

어떤 이들은 자기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어느 특정한 인물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스스로를 망친다.

평가

이 부분은 다소 원문과 번역본의 괴리가 느껴졌는데, 'die nichts von ihnen wissen will' 을 '자기에게 관심도 주지 않는 사람' 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이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에 대하여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이 되는데, 이를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약간의 의역을 가해줌으로써 오히려 더 매끄럽게 읽혔다.

3.

원문

Ohne ein Geräusch zu machen ging er rückwärts auf die Lادتür zu, wobei er die andere Tür, die zum Kabinett, ängstlich im Auge behielt.

번역본

그리고 별실로 통하는 문을 조마조마하게 쳐다보면서 소리 안 나게 상점문 쪽으로 뒷걸음질쳤다.

평가

원문에서는 Lادتür와 ander Tür가 대비되는 데 반하여, 번역문에서는 그 대립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쉬웠다. 또한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서 원문에서의 조마조마한 느낌이 오히려 죽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소년은 소리 없이 상점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불안한 시선은 별실로 향하는 또 다른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라는 식으로 번역을 다시 해보았다.

4.

원문

Die Hefte, die Schulbücher und der Federkasten in seiner Mappe hüpfen und klapperten im Takt seiner Schritte.

번역본

책가방 속의 필통과 교과서, 공책들이 소년의 뒤통에 맞춰 덜컹거리며 춤을 추었다.

평가

번역본에서는 다소 시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급하게 달아나는 상황에서 춤을 춘다는 표현은 오히려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색함을 준다. 본문에 충실하게 ‘책가방 속의 공책들과 교과서, 필통이 소년이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함께 덜컹거리며 흔들렸다.’ 라고 번역을 해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다.

5.

원문

Er hatte gestohlen. Er war ein Dieb!

번역본

도둑질을 한 것이었다. 나는 도둑이 아닌가!

평가

이 글의 서술자는 바스티안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스티안을 지칭할 때 3인칭을 사용한다. 번역본에서도 일관성 있게 이를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물건을 훔쳤다. 도둑이 된 것이다!’ 라고 해주면 좀더 원문에 충실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6.

원문

Bastian hatte sich noch nie überlegt, ob der Vater diese Arbeit eigentlich gern tat.

번역본

바스티안은 도대체 아버지가 즐겨서 이 일을 하는지 어떤지 지금껏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평가

‘즐거서 이 일을 하는지 어쩐지’ 부분이 상당히 어색해 보인다. 원문에서 요구하는 바는,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의무감에서 하는지 혹은 그냥 하는 것인지 스치는 생각에 궁금해진 것인데, 번역본의 문장은 너무 중언부언 하는 느낌이 든다.

‘바스티안은 아버지가 진정으로 자신의 일을 즐겨서 하는 것인지 한 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었다.’

\* 총평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번역했던 글들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은 글이었다고 생각한다. 길고 어려운 문장이 많았음에도 흐름을 놓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려 했던 것이 인상적이었고, 여러 곳에서 한국어 독자들을 배려한 노력도 보여서 술술 읽어내려갈 수가 있었다. 바스티안이 책을 훑쳐 달아나는 순간의 긴박함도 원문에 버금갈 만큼 잘 살아있었다.

그러나 몇몇 군데에서, 물론 이조차도 비평을 목적으로 해서 읽었기 때문이겠지만, 번역본 특유의 어색한 느낌을 완전하게 감추지는 못했다는 인상도 받았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는 높은 점수를 줘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한 번역본이었다.